



‘캘리포니아 탐험 정신이 깃들여진 베린저의 심볼 와인’

베린저 파운더스 샤르도네

Beringer Founders Estate Chardonnay

지역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9%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7~10℃		
테이스팅 노트	서양배, 사과, 잘 익은 열대과일 풍미에 입 안을 꽉 채우는 라운드한 미디움바디 텍스처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순수한 샤르도네 포도의 깔끔한 플레이버와 오랫동안 이어지는 피니쉬가 좋다. 그릴드 치킨, 생선요리, 리치한 소스의 리조또 등과 잘 어울린다.		
페어링 TIP	흰 육류/ 해산물/ 생선/ 채소/ 부드러운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베린저 '파운더스 에스테이트(Founder's Estate)'는 설립자 형제인 제이콥(Jacob)과 프레드릭(Frederick)이 독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와 1876년 베린저 와이너리를 설립하도록 이끈 선구자적인 탐험, 모험심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훌륭한 와인을 제조하고자 했던 철학에서 비롯,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의 와인들을 14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집중도 높게 표현하고 있다.

* 빈티지에 따라 알코올 도수 소폭 변동될 수 있음

와이너리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역사적인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로 18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 밸리의 정착한 독일인 형제 제이콥 베린저(Jacob Beringer)와 프레드릭 베린저(Fredrick Beringer)에 의해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파 밸리 와인의 개척자로 알려진 베린저는 139년의 역사동안 총 8명의 수석 와인메이커를 두고 최고의 와인에 대한 자신감과 나파 와인에 대한 책임감, 사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다. 캐주얼 와인부터 플래그십 명품 나파 부티고 와인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고 와이너리답게 금주령 시기에도 시기에도 미사주 전담 양조를 허가받았으며 레드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 'Wine Spectator'가 선정한 '올해의 와인(Wine of the Year)'로 선택된 유일한 와이너리다.

이 외에도 'Wine Enthusiast', 'Wine&Spirit'으로부터 '올해의 와이너리'에 총 11번 선정되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